

‘목포 해변 맛길 30리’ 조성 사업 윤곽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거점도시 지정이 유력한 가운데 목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목포 해변 맛길 30리 조성’ 사업의 윤곽이 드러났다.

해변 맛길 30리 조성은 민선 7기 김종식 시장의 공약사업이자 올해 목포시 5대 역점사업 가운데 하나로 지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이 사업은 해안 풍경을 목포만의 매력 있는 근대역사, 관광자원, 맛집, 문화·예술 공간을 연결해 특화된 도보 길을 만들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조화 있고 특색 있는 맛있는 길과 맛을 느끼게 하는 길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목포 주요 해안인 평화광장에서 시작해 갯바위, 남항, 삼학도, 동명동 천수공간을 거쳐 재보선항 다순구미 길과 유달동 해안도로를 지나 유달 유원지에서 목포해양대학교에 이르는 길로 총 연장 11.7km다.

목포시에 따르면 30리 사업은 총 5개 구간으로 나눠 추진되며 최근 5개 구간 명칭이 확정됐다. 3년 연차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00억원(도비 50억, 시비 50억)이 투입된다.

평화광장~남해배수처리장(2.6km)에 이르는 1구간은 ‘바닷가 미술관길’, 2구간은 남해배수처리장~대삼학교(2.3km)까지로 ‘생태 숲길’, 대삼학교~요트마리나(1.8km) 3구간은 ‘온가족 나들이길’, 요트마리나~목포수협(2.4km)은 4구간으로

평화광장~목포해양대 11.7km 역사·관광자원 연계 명품 산책로 미술관길·개항역사길 등 5개 구간 3년간 100억 투입 7월 착공



‘개항 역사길’, 마지막 5구간은 목포수협~목포해양대학교(2.6km)까지로 ‘연인의 길’로 각각 명명됐다. <위치도>

1구간은 풀음이 있는 평화광장 구조개선사업과 연계해 바다분수와 천연기념물 500호인 갯바위, 데크 로드를 따라서 자연사박물관, 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문화예술타운을 거쳐 남항의 탄성애에 이르는 구간으로 바다포장 패턴, 바다경관 디자인이 도입된다.

또 2구간은 남항 일대로, 남해수질정화센터와 연계해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정화해 바다로 돌려보내는 곳의 장점을 활용해 철새의 서식지인 유수지와 갈대습

지, 바다여류, 습지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환경 생태체험 공간으로 조성된다.

3구간은 삼학도 공원이 주 무대다. 온가족이 함께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고 사계절 꽃 피는 테마정원 조성사업(광주일보 1월 14일자 11면 보도)과 연계 추진된다.

특히 주변에 산재된 노벨평화상 기념관, 어린이박물관, 요트마리나 시설을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삼학도 전설을 모티브로 한 스토리텔링 작업에 방점이 찍힌다.

4구간은 지붕없는 박물관으로 유명한 근대역사문화 공간과 목포관에서 잡힌 싱

싱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맛 집들이 산재돼 볼거리를 먹거리를 동시에 충족하고 9미(味) 조형물과 가로변 쉼터를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마지막 5구간은 유달산과 목포대교, 고하도 야경을 한눈에 관람할 수 있고 다도해를 조망할 수 있는 걷기에 최적의 길이다. 여기에 영산기맥 트레킹길 16.7km와 유달산 둘레길 6.3km와도 연결돼 금상첨화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시민은 물론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해안 풍경과 볼거리, 맛을 함께 느낄 수 있는 해변을 따라 도보여행 코스를 만드는 게 골짜기다. 잘 정비된 공원과 숨은 골목길, 오랜 전통을 가진 아기자기한 가게 등 걷기 마니아층에게 풍성한 경험을 선사하는 ‘워커블 시티’를 조성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며 “관광거점도시사업인 ‘슬로우 워킹투어 시스템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시장은 “해변 맛길 30리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해상버스 운영, 구간별 특색있는 스마트 안내판 설치 등 편의시설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여 특화된 관광자원과 연계해 글로벌 시대의 도보 관광객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업은 최근 나온 용역 결과를 토대로 6월까지 실시계획을 마치고 7월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간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설 명절을 앞두고 중앙시장에서 실시한 안전점검 모습.

시설물 안전점검, 지역 대학생들 참여

건축·전기·소방 등 5개 분야 30명 구성

목포시가 주요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지역 내 대학생들을 참여시키는 ‘대학생 안전점검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시책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역 내 대학생들과 함께 실시해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배양하고 전문지식 습득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다.

목포시에 따르면 대학생 점검단은 관내 목포해양대, 목포과학대, 세한대, 목포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건축 6명, 전기 6명, 토목 6명, 소방 6명, 해양 6명 등 5개 분야 3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앞으로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인근대학교 시설과 관내 주요시설에 대한 합동점검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목포시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다음 달 초 대학생 안전점검단 구성과 임명장을 수여하고 목포시 안전관리위원회의 분야별 교육을 실시한 후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책이 시행되면 대학생들의 안전의식 고취는 물론 전문분야 안전점검 실습을 통해 대학생들이 사회진출에 필요한 스펙을 쌓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사랑운동, 범시민 실천운동으로 추진

위생업소·운수종사자 친절도 높이기 초점

‘천만 관광도시’ 육성 박차

목포시가 올해 ‘천만 관광도시’ 목포사랑운동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대한민국 대표 관광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목포사랑운동을 범시민 실천운동으로 추진한다.

지난 2018년 말 시작된 목포사랑운동은 ‘친절·질서·청결·나눔’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실천과 시민의식 개혁운동이 핵심이다.

지난해 8월 실시된 관광객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목포시민의 친절도, 질서의식, 시가지의 청결상태를 묻는 질문에 61%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일부 위생업소의 관행적인 호객행위와 부당요금 징수 사례가 발생하는가 하면 운수종사자의 불친절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위생업소 및 운수종

사자의 친절도 제고에 초점을 맞춰 모든 역할을 집중한다는 게 목포시의 목표다. 특히 시는 2020년을 보여주기식 캠페인을 탈피해 사회단체와 전 부서가 연계, 역할분담을 통해 내실을 다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1일 주요 사회단체 및 관련 부서, 상인회 대표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어 2020년 추진방향 제시와 함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고 뜻을 모았다.

목포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1부서·1사회단체가 담당 위생업소를 연중 책임관리하는 110운동을 비롯해 관광객이 SNS 상 방문소감·친절업소, 택시 등의 칭찬사례를 게재할 경우 모바일 상품권 증정, 방송사 공익광고 동영상 및 UCC 공모 당선작 활용 홍보 등 다양한 신규 시책을 추진해 실효성 있는 목포사랑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해양대, 포럼서 우수사례 잇따라 선정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목포해양대학교가 국립대학육성사업 성과포럼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학혁신포럼에서 사업 우수사례로 잇따라 선정됐다.

목포해양대학교에 따르면 지난 9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2회 국립대학육성사업 성과포럼’에서 ‘목포 원도심 리빙랩 프로젝트’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또 16일부터 이틀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학혁신포럼’(사진)에서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포럼에는 ‘교육혁신 사업성과의 공유와 확산, 그리고 이를 통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대학 혁신’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대학 혁신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전국 143개 대학 관계자 1000여명이 참가했다.

최현준 목포해양대학교 기획처장은 “각종 성과 포럼을 통해 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목표, 운영과정, 운영 성과를 보여줬다”며 “학생들의 요구 등을 파악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목포시 ‘100원 택시’ 관련 조례 제정

박용 시의원 대표 발의

목포시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운영 중인 ‘100원 택시’와 관련해 조례가 제정됐다.

박용(사진) 목포시의회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100원 택시 운영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100원 택시의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길이 열렸다.

이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100원 택시 탑승대상 및 운행방법 ▲이용권 발행 및 양도·양수 금지 ▲비용지원 결정 ▲사후 관리 등이 담겼다.

박용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자연마을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과 60세 이상 주민들에게 이용권을 지원함으로써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잠재된 택시업계에도 조금이나마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목포시는 기존 4개 마을(옥암·장재·월산·산계)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100원 택시를 올해 들어 삼향동 신지마을까지 확대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의료광고심의의결 제 20107-중-103754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거울철 넘어짐 골절질환

“ 척추골절, 손목골절, 고관절골절 ”

첨단우리병원에서 치료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www.woori-hospital.com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빵암공원 앞 위치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